

起點과 指向點의 한 解釋

金 興 洙*

I

언어가 現象의 論理에 대한 한 抽象的 解釋이라 할 때, 時間과 空間의 논리가 文法을 이해하는 데 한 중요한 관점을 줄 수 있음은 쉬운 이치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認識이 文法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區間과 點, 處所와 方向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각각의 특성과 관련성이 추구되었다. 한편 現象의 動的인 논리를 담고 있는 動詞를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狀況은 狀態, 過程 또는 事件, 인간의 行動 들로 나눠 생각할 수 있고, 이들 양상에서는 다시 因果와 目標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本稿는 이러한 생각들의 바탕 위에 국어 문장의 意味와 그에 관련된 統辭論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試圖로서, 格文法의 思考와 動詞의 特性에 대한 認識을, 起點(source)과 指向點(goal)의 개념 속에서 綜合하려는 것이다. 현대국어의 格에 관한 연구는 統辭·意味範疇로서의 內面格體系 設定과, 主格形, 對格形, 處格形과 주로 관련된 特異한 統辭構造의 설명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格文法理論을 一般化하고 그 適用 妥當性을 검토하는 문제가, 국어 助詞類의 形態나 機能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만나게 된 하나의例인데, 본고 역시 內面格의 한 部類와 그 格成分 또는 格標識 實現의 문제를 다루되 動詞의 語彙特性을 중시하려는 것이다. 서로 관련되기에 한꺼번에 내세웠지만 본래 관심의 대상은 原因性(causality) 및 方向性(directionality)과 관련된 指向點의 문제였는데, 지향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

* 博士課程(全北大)

하지 않는 이상 起點을 아울러 想定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념의 구체적 적용만을 조금 새로이 하여 두 개념을 끓어서 다루게 되었다. 지향점의 문제 제기는 잘 알려진 바 處格成分과 造格成分의 意味論的 關聯과, 特異한 處格形 ‘-에게’의 先行成分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논의의 순서를 요약컨대 먼저 指向點과 起點의 개념, 過程과 動作 또는 行爲의 개념을 검토하고, 종래에 지향점과 기점의 개념이 적용되었던 국어 文章들을 再論한 다음, 본고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한 몇몇 動詞部類의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다.

II

格範疇로서의 起點과 指向點은 術語나 概念上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經過點(Path)이나 作爲(Factitive)보다도 낫설지 않고, 能動性(ergativity), 他動性(transitivity)과 관련된 Nominative+Ergative보다도 더 잘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어떤 動詞에 대해서는 이들의 개념이 가장 적절한 설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Fillmore(1971: 376)가 處格(Locative case)을, 그 方向性에 着眼하여 그 시작과 끝이 되는 點으로 兩分함으로써, 空間的 移動이나 時間的 進行은 물론 事態나 狀況의 推移, 進展에도 관련지을 수 있게 되었다. Nilsen (1973)에서는 格으로서의 Source와 Goal은 副詞格(様相格)에 設定하고, 意味資質로서의 Source는 材料格(Material case)에, Goal은 經驗主格(與格)에 表示하여, 시간이나 공간 표현 외에 行動, 經驗 표현에서도 Goal의 인식은 가능함을 보이고 있으나, Fillmore (1971, 1977)는 動詞의 語彙特性과 場面(scene) 표현의 觀點(perspective)을 강조하면서 Goal과 對象(Object)의 差異를 논하고 있는데¹⁾, 이 같은 Goal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심화는 本

1) Fillmore의 Source와 Goal의 개념은 對象의 空間的 移動, 位置 變化에 根據하고 本稿의 發想 또한 그러하나, Fillmore(1971: 380)에서 'cover'의 goal成分인 'the fender'가 對格成分이 되는例, 같은 論文(390~1)에서 'blame',

稿의 생각에 도움이 되었고, 이들과는 좀 다른 立場인 Halliday(1970, 1976)는 他動性과 관련된 動作動詞文의 설명에서 對象(patient)과 結果的 對象(Factitive에 해당되는)을 Goal로 둑고 종래의 與格에 대해서는 受惠者(beneficiary)를 대응시키고 있는데, 文法의 개념인 直接目的語와 間接目的語가 Goal과 갖는 關聯性을 깨우치게 하는 점에서 인상적인 示唆가 되었다.

국어의 格에 관한 논의에서 Source와 Goal에 대한 한 定義를 成光秀(1979 : 33)에서 보는데, 源格과 達格이란 譯語 아래 可算的 範圍內의 始發點, 行爲나 變化의 到達點 또는 目標點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고, 梁東暉(1973)와 洪允杓(1978)에서는 Source와 goal, 出發點과 到着點의 개념에 따라 處所性과 移動性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본고는 Source와 Goal에 대한 인식과 그 구체적 適用 樣相을 이해함에 있어 이들에 크게 힘입고 있지만, 우리의 논의는 오히려 格의 한 意味論의 素性으로 ‘指向性’을 想定하고 그 相關性을 追求한 李承旭(1970)이나 行爲의 指向點과 對象의 문제를 다룬 朴良圭(1978), 與格標識(Dative marker) ‘-에게’의 先行成分에 대한 意味解釋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송석중(1980)의 논의와 더 관련된다 하겠다.

I 장에서 암시한 바 있지만 筆者は 方向性을 隨伴하는 起點과 指向點의 개념이 因果的側面에서 거의 모든 過程과 行動에 適用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사용하는 起點과 指向點이란 術語는 格文法에서 설정한 Source나 Goal과 固有한 概念²⁾의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格과 對比되는 關係概念의 면에서는 사뭇 다른 의의를 갖는다. 이는 叙述語가

‘accuse’의 예, 후의 論文(1977 : 77~8)에서 ‘push’와 ‘table’, ‘fill’과 ‘glass’의 관계에 대한 그의 해석 들은 對象에 대한 指向性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암시 한다.

2) Fillmore(1971 : 376)에 따르면 Source는 ‘the place from which something moves’, Goal은 ‘the place to which something moves’로 定義되어 있는데, 문제는 ‘something’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가 想定한 Object는 물론 Result, Experiencer 등도 이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갖는 文法的 特性보다는 意味論의 樣相과 더 관련되고, 따라서 文章에 대한 文法의 意味解釋보다도 表現되는 狀況이나 場面³⁾ 속에서의 의미 해석을 더 重視하기 때문이다. 다음 章에서 狀況에 대한 認識과 觀點의 문제로서 過程과 行動의 개념을 反省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III

요즘 잘 알려져 있는 Chafe(1970: 98~102)의 分類에 의하면, 狀態(state)는 實體(thing)나 對象(object)이 어떤 狀態나 條件에 놓여 있는 狀況을, 過程(process)은 그들의 상태나 조건에 어떤 變化가 일어난 것을, 行動(action)은 상태나 상태의 변화와는 無關한 活動을 가리키고, 이에 따라 動詞는 狀態, 過程, 行動, 行動過程들을 表現하게 된다. 前章의 끝에서 말했듯이 起點과 指向點은 狀態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해 보이는데, 상태의 경우에도 생각해 볼만한 예는 존재한다.

- (1) a. 영수는 詩人이다.
b. 영수는 詩를 쓰고 있다.
- (2) a. 그릇이 깨져 있다.
b. 그릇이 깨졌다.
- (3) a. 그 마을까지는 찻길이 通해 있다.
b. 그 마을까지는 車가 들어간다.
- (4) a. 철수는 그 事實을 알고 있다.
b. 철수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c. 철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 (5) a. 영이는 새 옷을 입고 다닌다.
b. 영이가 신이 나서 새 옷을 입고 있다.
c. 영이가 새 옷을 입었구나.
d. 영이는 모임에 가기 위해 새 옷을 입었다.

3) 여기서 狀況이나 場面이라 함은 發話上의 話用論의 개념이기보다 表現 對象으로서의 認識論의 개념으로 Fillmore(1977: 72~4)의 'scenes'와 같다.

- (6) a. 영이는 아버지{와, *를} 비슷하다.
 b. 영이는 아버지{와, 를} 닮았다.
 (7) a. 영이는 얼굴이 창백하다.
 b. 영이 얼굴이 창백한데.
 c. 영이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1) a는 個體의 屬性에 대한 叙述로서 (1) c의 命題와 같은 성격을 갖는데, c의 두 變項(argument)간에 일정한 論理的 方向이 있어 보이며 이는 두 概念간의 包攝관계에 기인한다.

- (1) c. 철수는 사람이다.
 c'. *사람은 철수이다.

(1) a의 繫辭文과 같은 의미내용을 b의 動作動詞文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總稱的 서술로서 反復, 持續相을 갖기 때문에, 特稱的 狀況에서의 過程性은 배제되고 命題內容상의 行動性만 유지되어 單純한 行動 表現으로 해석된다. 혹 狀態 表現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고 있-'의 時相的 特性에 이끌린 것이다. (2) a는 過程에 따르는 結果的 狀態 表現으로, b의 過程動詞文에서도 그러한 意味解釋이 아주 배제되지는 않으나 事件(event)의 發生, 過程의 完了라는 면이 더 두드러진다 하겠다. (3) a의 '通하다'는 過程動詞로 인식되며 b의 行動 表現으로 意譯될 수 있다. 인간 固有의 精神的, 生理的 現象으로서 認識, 情緒, 感覺 活動은, 그 非行動性에 따라 經驗의 양상으로 또는 狀態나 過程 表現으로 이해되는데, (4)의 '알다'는 狀態와 過程으로 다 해석 가능한 동사로서, (4)의 a는 b에 대해서 (2)의 a가 b가 結果化(Resultative) 派生을 거친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 마찬가지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c의 '-게 되-' 構成은 過程性에 더 충실한 表現으로서, c'의 基底文으로 이해되며, d의 '-이/가' 重出文과도 意味論의으로는 같은 양상을 보인다.

- (4) c'. 철수는 狀態(처지, 상황)이 철수가 그 사실을 알게 {?가, 를, ?로} 되었다.

d. 철수가(는) 어려운立場이 되었다.

‘알다’와 같이 狀態와 過程 表現을 다 아는 동사는 오히려 例外的인 존재로서, ‘모르다’가 狀態 표현으로, ‘깨닫다’가 過程 표현으로 인식되듯이 心理, 知覺活動과 樣相을 표현하는 동사들은 그 상태나 과정 어느 한局面에 초점을 두며 때로는 行動性을 문제삼기도 한다.⁴⁾ e, f의 ‘알다’는 內的인 狀態의 變化뿐만 아니라 意志에 의한 外的인 動作內容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e. 알려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 봐.

f.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아 봐.

(5)의 ‘입다’는 動作動詞로 분류되지만 상태, 과정, 행동의 표현으로 다 해석될 수 있어서, a는 상태, b는 행동, c는 과정의 결과적 상태, d는 행동과 그에 따른 과정의 표현으로 각각 이해된다. 즉 ‘입다’는 입는 動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狀況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 主語 또한 항상 動作主가 아니고 때로 對象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가령 (5) a는 상태 a'와 행동 a''의 複合的인 표현으로서 주어 ‘영이’는 a'에서는 대상으로, a''에서는 행동의 主體로 생각되며, (5) d의 주어 ‘영이’는 동작의 주체이자 웃이 입혀지는 과정을 겪는 대상인 것이다.

(5) a' 영이는 새 옷을 입고(서) 있다.

a'' 영이는 (거리를) 다닌다.

(6) b의 交互關係 표현 ‘닮다’는 對格形을 허용함으로써 단순한 상태

4) 본고는 心理, 情緒 表現의 動詞에 대한敘述에 있어 李廷政(1976)의 動詞分類와 類別 意味資質의 내용에 큰 도움을 받았다. 여기서의 狀態性, 過程性, 行動性은 動詞에 固有資質로 表示해 주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찾다’, ‘잊다’, ‘믿다’, ‘생각하다’, 그 외에 ‘슬프다’, ‘무섭다’ 등 狀態動詞를 포함해 心理 表現의 많은 동사들은 內的, 外的 對象에 대한 指向性을 갖기 때문이다. ‘-고, 있-’ 形이나 命令形의 可能性 여부가 狀態性 判別의 基準으로서 불충분한 것도 이런 점과 有關하지 않을까 싶다.(朴良圭, 1978 : 61 註 6. 參照)

아닌 結果的 狀態로서의 인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닮다'가 '같다'나 '비슷하다'와는 달리 時相 표현의 '-는-' 統合形을 허용하는 사실과 아울러 닮는 상황의 方向性 또는 過程性을 드러내 주는 증거라 하겠다.

(7)의 a와 b는 같은 狀態에 대한 표현이지만 a는 主觀的 知覺體驗이 개입되지 않은 客觀的, 本質的 屬性 표현이란 점에서 特定 狀況에서의 한 개인의 관찰 결과인 b와 구별된다. c가 얼굴 표정의 변화에 대한 過程 표현임은 말할 나위 없지만 b도 意譯形 b'를 참조할 때 過程性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7) b' 내 눈에는 영이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7) c의 過程性은 起動化(Inchoative) 派生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아 지-' 構成은 文法的 派生節次의 面과 아울러 表現狀況의 面에서 '-게 되-' 구성과 비교될 수 있다.⁵⁾ (7) c는 c'나 c''의 의역형을 가질 수 있는데, 對象의 變化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c가 最善이며, c'나 c''는 대상의 변화와 아울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 상황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7) c'. 영이가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다.

c''. 영이가 얼굴이 창백해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순수히 論理的인 命題上의 關係敘述 아닌 現象 表現에 있어서, 狀態와 過程은 文法範疇上으로는 구별될지언정 意味解釋上으로는 連續的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行動 또한 과정을 同伴하는 것 이 보통이므로 二元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過程도 일정한 時間

5) '-지다'와 '되다'는 被動과의 관련하에 논의되어 있는데 過程性 표현이란 점에서 被動性의 한 특징과 만난다. 이에 대한 논의로 任洪彬(1977) 외에 成光秀(1976)와 沈在箕(1981: 77~87)의 다음 논문을 참조했다.

成光秀, “국어 간접피동에 대하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沈在箕, 國語語彙의 統辭的 機能變換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文學博士學位論文)

과 空間의 軸 위에서 진행되는 對象들의 變化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논리적으로는 對象들간의 關係의 변화도 생각할 수 있다.⁶⁾ 過程의 양상을 명확히 分類, 定義하는 일은 과제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對象 자체의 변화와 대상이 갖는 關係性의 변화를 구별해 보는 것은, 現象에 대한 充實한 記述과 그 意味에 대한 解釋이 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수긍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現象 이해의 관점에서 起點과 指向點의 개념이 文章의 意味와 統辭構造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表現狀況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過程이나 事件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乾燥하거나 바람이 부는 自然現象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 (8) a. 지수지가 말랐다.
 b. 가문이 지속되더니 지수지가 말랐다.
 c. 가문(에, 으로) 지수지가 말랐다.
- (9) a. 옷이 말랐다.
 b. 햇볕(에, 으로) 옷이 말랐다.
 c. 언이가 옷을 햇볕(에, 으로) 말렸다.
 d. 영이(에게, 의 손에, 에 의해서, 로 인해서) 옷이 말랐다.
 e. 햇볕이 옷을 말렸다.
- (10) a. 바람이 절더니 나무가 쓰러졌다.
 b. 바람(에, 으로) 나무가 쓰러졌다.
- (11) a. 모자가 날아갔다.
 b. 칠수가 바람에 모자를 날렸다.
- (12) a. 친풍이 바람(에, 으로) 머리가 말랐다.
 b. 칠수가 친구가 바람(에, 으로) 머리를 말렸다.

(8) a의 過程 또는 結果的 狀態는 對象 자체의 변화라는 면에서는 起點이 ‘물이 마르기 이전의 저수지의 상태’로, 指向點은 ‘發話時의 저수

6) 對象 自體의 變化가 位置의 변화라면 關係性의 변화는 位相의 변화라 하겠다. 가령 ‘책을 읽다’의 경우 실제 책에는 아무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被動 表現이 가능하다거나, ‘降雨’의 現象에 대해 ‘비가 온다’, ‘비가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例이다.

지의 상태'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동사에 대한 의미해석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거나 程度를 밝히지 않는 한 文章成分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을 좀더 全體的으로 해석한다면 대상 '저수지'가 겪는 변화는 自生的인 것이 아니고 다른 對象의 作用에 따른 結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作用의 動機가 되는 대상을 과정의 기점으로, 그 작용의 影響을 입는 대상을 지향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과정의 기점과 지향점이란 現象에 대한 因果的 解釋에 따른 것으로, (8) b에서는 현상으로 인식되던 것이 c에서는 實體性⁷⁾을 갖는 體言成分으로 실현되고 있다. 아직 c에서의 處格形과 造格形의 差異는 잘 알 수 없으나 作用이나 過程의 起點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점에 대한 인식의 深化를 통해 그 차이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⁸⁾ (9) a의 과정은 作用의 方向뿐 아니라 行動의 방향성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서, 과정의 기점은 작용의 기점인 '햇볕'과 행동의 기점인 '영이' 둘이고 지향점은 '웃'인데, 作用性과 行動性은 '마르다' 동사의 語彙特性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그로 표현되는 狀況에 포함되는 對象들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햇볕'과 '영이'가 b와 d에서 類似한 構成을 갖는 것은 과정의 기점인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e에서 '햇볕'이 '말리다'의 主語로 잘 실현될 수 없는 것은 행동의 기점 아닌 작용의 기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使動詞 '말리다'는 '마르다'가 狀態의 物理的 變化를 직접 指示하는 것과는 달리 行動性과 過程性을 지시할 뿐 特定한 動作을 구체

7) 우리의 '實體性'은 'entity'의 의미이다.

8) 이를 바 '原因'의 '-에'와 '-로'에 대해서는 話者의 意識域의 差異에 따른 選擇幅의 차이로 보려는 任洪彬(1974: 145~6, 149)의 논급이 있거나와 狀態性과 行動性 혹은 靜態性, 動態性의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 (沈在箕, op. cit., 119-20) '-로'가 行爲性이 前提되는 道具格成分에, '-에'는 被動的 表現에 잘 쓰이는 것은 그 例證이 될 수 있겠다. 월자는 拙稿(1980)에서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해 다루지 못했는데 本稿에서도 '-에'의 極性과 '-로'의 過程性을 몇 例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친다.

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데, 혹 e가 가능하다면 使動詞의 이러한 特異性 때문일 것이다.⁹⁾ (10)은 대상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사건 표현이지만 그 과정성은 '마르다'와 같은 논리로 설명된다. (11) b는 a의 과정을 수반하는데 실수인 경우와 고의인 경우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송병학(1979: 98~9)은 이를 '절수'를 각각 受惠者格과 行爲主格으로 해석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前者는 過程 表現으로 後者는 行動 표현으로 봄으로써 쉽게 구별할 수 있다. (12) b의 '선 풍기 바람'은 處格, 造格形으로의 실현이 다 가능한데, 처격형의 경우 對象 '미리'의 지향점일 수도 a에서와 같이 작용의 기점일 수도 있으며, 조격형의 경우는 행동의 지향점이자 작용의 기점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X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現象 追求의 경우로서 生理的, 心理的 過程의 양상을 살펴본다.

- (13) a. 철수가 병이 들었다.
b. 철수가 병(이, 예, 올) 걸렸다.
c. 철수가 병을 앓았다.
- (14) a. 아, 졸려.
b. 미칠 것 같다.
c. 손이 시렵다.
d. 온몸이 아프다.
- (15) a. 이 고추는 참 매운데.
b. 정말 소문대로 예쁘군.
c. 이 옷 너한테는 너무 클걸.
- (16) a. 철수는 영이가 그리웠다.
b. 철수는 (그 영이) 슬펐다.
- (17) a. 철수는 그 소문이 놀라웠다.
b. 철수는 그 소문에 놀랐다.

9) (9) e와 같은 使動詞文에 대해 朴泳穆(1977: 97), 송병학(1979: 97, 100)은潛在的 動作主나 道具格對象이 다른 조건 없이 使動詞의 主語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任洪彬(1978: 103)은 行動性과 同質의 作用性 표현으로 보았으며, 송석중(1980: 61)은 話者の 認知(perception)에 따라 선택된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는 이를 過程上의 原因性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그 대상에 초점을 준 표현으로 본다.

- (18) a. 영이는 그 영화가 감동스러웠다.
 b. 영이는 그 영화에 감동되었다.
 c. 그 영화가 영이를 감동시켰다.
- (19) a. 철수는 그 일이 후회스러웠다.
 b. 철수는 그 일을 후회했다.
 c. 철수는 그 일이 후회스럽게 느껴졌다.
- (20) a. 철수는 (우연히) 영이를 보았다.
 b. 철수는 고개를 돌려 영이를 보았다.
 c. 철수에게 영이가 보였다.
- (21) a. 철수는 {영이와 결혼한 사람, 영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b. 철수는 {영이, 영이가 한 말}을 생각했다.
 c. 철수는 영이가 틀렸다고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들 현상의 過程性은 內的, 外的 刺戟과 그에 대한 反應의 關係로 파악되며 따라서 자극이 과정의 기점, 반응을 보이는 對象이 지향점으로 인식된다. 흔히 이 경우 反應의 主體는 經驗主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과정을 行動과 같은 人間固有의 현상으로 파악하여 經驗이라는 特性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3)의 ‘病’, (15)의 ‘고추’, (16)의 ‘영이’, (17)의 ‘소문’, (18)의 ‘영화’ 등 모든 과정의 기점이 (13) c나 (19) b, (20) a, (21) a, b의 對格成分과 같이 경험의 지향점이자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3) b의 被動詞 ‘걸리다’는 行動과 無關한 과정 표현으로 主格形으로 실현된 ‘병’이 경험의 대상에 더 접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4)에서 외적 자극은 處格成分으로 잘 실현되지 않으며 主格成分으로서의 실현은 더 어렵다. (15)에서는 對象을 感覺하거나 判斷하는 話者가 존재하는데 여기서의 叙述語들은 客觀的인 屬性 표현에 주로 쓰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16)은 자극이 되는 대상의 作用性이 약해서 과정의 방향이 逆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a는 그리움의 대상성분을 꼭 실현시키는 반면 b는 뚜렷한 대상을 갖지 않는 슬픔도 표현할 수 있다. (19) 역시 자극대상의 作用性보다는 應主體의 內省的 動機가 강해서 行動성이 缺如된 內的 움직임을 보여

주는데, 이 경우 우리는 ‘후회’를 内的 經驗으로, 후회의 대상인 ‘그 일’을 경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적 경험이란 점에서 는 (21)의 ‘알다’나 ‘생각하다’도 같이 생각될 수 있는데, ‘후회하다’가 事實性 對象만을 갖는 반면 (21)에서는 實體나 非事實性 對象도 가질 수 있다. (17), (18)은 자극대상의 作用性이 두드러지다는 점에서, (20)은 内部의 心理보다 外部의 感覺器官에 작용해오는 外的 經驗이란 점에서 위의 예들과 다른데, (18) c가 가능한 것은 ‘자동’의 과정이 作用性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20) a는 經驗, b는 行動, c는 過程으로 각각 해석할 수 있다.

세제로 狀況에 대한 認識과 表現의 觀點이란 면에서 같은 과정이나 空洞에 대해 다른 文章構造나 意味構造를 갖는 경우를 본다.

- (22) a. 철수가 영이를 죽였다.
b. 영이가 철수에게 맞았다.
- (23) a. 철수가 총으로 새를 쏘았다.
b. 철수가 새에게 총을 쏘았다.
c. 철수가 새에게 땅아쇠를 당겼다.
- (24) a. 철수가 것가나으로 밥을 먹고 있다.
b. 철수가 원는으로 밥을 먹고 있다.
c. 철수가 영이와 (같이) 밥을 먹고 있다.
- (25) a. (철수, 영수)가 영이를 죽였다.
b. (철수, 영수)가 영이를 죽게 했다.
c. 철수가 영수를 시켜서 영이를 죽였다.
d. 철수가 영수로 하여금 영이를 죽이게 했다.
- (26) a. 산이 온통 눈[에, 으로] 쌓였다.
b. 영이는 친구들[에게, 로] 둘러싸였다.
- (27) a. 사람들이 땅이 가득하다.
b. 땅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 (28) a. 철수는 영수보다 크다.
b. 영수는 철수보다 작다.
- (29) a. 돈이 만 원이 들었다.
b. 돈을 만 원을 썼다.

(22)의 a와 b는 能動, 被動文의 관계와 유사한데, 행동의 방향성이라는 과정성의 면에서는 같되 a는 行爲로, b는 過程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다르다. (23)의 a와 b는 대상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差異를, c는 다른 대상의 選擇을 보여준다. (24)는 話用上 不必要한 成分을 省略하는 대신 話題의 焦點成分을 실현시킨 경우이며, (25)는 殺人의 과정에 있어 그 原因과 責任의 所在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構文型의 선택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인다.¹⁰⁾ 가령 (25) a가 c, d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데 主語가 '철수'라면, a는 과정 표현으로, 주어는 그 原因性에 초점을 갖는 경우로 생각될 수 있다. (26), (27)은 '-에'와 '-로'의 문제로 과정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며,¹¹⁾ (28), (29) 역시 방향성의 관점에서 比較構文과 自動, 他動詞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네째로 動作, 行動, 行爲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人間의 行動은 身體的 움직임이 가능한 다른 有情物의 屬性으로 생각되어, 動作主를 主語로 가지며 意圖性, 原因性, 支配性 등의 特性들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動詞의 下位分類에서 場所移動, 成就, 再歸的 動作, 心理的 過程 등을 표현하는 동사들의 特性이 주목되었듯이 동사의 動作內容은 아주 단순하고 物理的인 것에서부터 복잡하고 抽象的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 다양성은 또한 동사가 갖는 體言成分과의 意味論의 관계도 다양하게 전개시킬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편의상 行動 樣相을 동작, 行動, 行爲로 三大別해 보고자 한다. 이들 區分은 본고의 論議에 특히 有效한 것으로 暫定的으로 定義를 試圖해 본다면, 動作은 동물의 本能의이고 非意圖의 움직임을 주로 하여 一定한 動機와 目標를 갖지 못하는 個別의이고 斷片的인 行動의 分節 또는 行爲의 要素들이고, 行動은 動作들의 連續으로서 行爲를 過程으로 인식한 것이며, 行爲는 人間이 뛰렷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일정한 成就點에 이르

10) 이는 註 9에서의 송석중(1980: 61)의 논의와 直結된다.

11) Fillmore (1971)에 따르면 (26)a의 '산', '영이', (27)의 '방'은 Goal이고 '눈', '친구들', '사람들'은 Object이다.

는 完結되고 統合的인 行動이라 하겠다. 가령 밥을 먹는 행위는 손놀림, 입놀림, 道具의 사용 등 동작과 消化作用 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동작은 일정한 順序에 의해 무수히 反復됨으로써 한 기의 食事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IV

국어에서 起點과 指向點의 개념과 術語가 직접 쓰이기 시작한 것은 格文法의 영향에 따른 것이지만, 그 方向性에 대한 인식은 일찍부터 있어서 최현배(1971:620)에서도 處所格의 下位意味로 落着點, 出發點, 向方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器具格의 材料나 變成格의 의미 등이, 格으로서의 기점과 지향점의 논리 적용이 비교적 수월한 경우가 되겠다. 이들 文例를 필자의 관점에서 하나씩 검토하기로 한다.

- (30) a. 물에서 얼음으로 되었다.
b. 물이 얼음이 되었다.
- (31) a. 밥이 다 되었다.
b. 사람이 그만하면 되었다.
c. 일이 잘 되었다.
- (32) a. 어제는 공부가 잘 되더라.
b. 오늘은 영어가 잘 안되는데.
- (33) a. 철수가 시험에 합격(이) 되었다.
b. 그 논문이 두번째로 발표(가) 되었다.
- (34) a. 철수가 회장이 되었다.
b. 우리는 철수를 회장{에, 으로} 선출(을) 했다.
c. 철수가 회장{에, 으로} 선출(이) 되었다.

‘되다’는 흔히 (30)에서 보듯이 過程의 起點과 指向點을 갖는 두 자리 叙述語로 인식되고 있으나, (31)에서는 기점이 생략된 한 자리 서술 어로, (32)에서는 과정의 지향점 또는 經驗의 기점이 생략된 한 자리 서

술어로 쓰이고 있다. (30)은 기점과 지향점 성분이 각각 어떤 格形으로 실현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a는 意味上으로는 過程 표현에 충실하나 統辭的으로 ‘물이 狀態가’와 같은 主語成分들이 想定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b의 두 主格形은 主語로 생각되기보다는 기점과 지향점으로 생각되고 대신 ‘상태(상황)’과 같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점과 지향점을 과정의 시작과 끝에 존재하는 兩 極點으로 볼 때 한 극점성분이 생략된 경우는 주격형만을 갖는데, (30)에서도 양 극점의 상태, 특히 지향점에 이른 결과적 상태의 표현은 b로 생각되며 a는 양 극점을 表示는 하되 動的 狀況 표현에 효과적이다. (33)의 ‘되-’에 의한 語彙的 構成에 주격형이 實現되는 것도 그 極點의 결과적 상태를 強調해서 표현하고자 한 결과라 하겠고 ‘(을) 하-’ 構成과의 의미상 差異 또한 이 점과 관련될 것이다. (34) b 는 a를 含意하는 점에서 흥미를 끄는데, 이는 b의 行爲가 c의 過程을 거쳐 a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에서 ‘회장으로’가 어색한 것은 選出에 따른 ‘철수’의 變化가 (30)에서의 物理的 現象과는 달리 漸進的으로 進行되지 않는 範疇上의 變換이기 때문이다. c에서는 오히려 주격형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선출되는 과정이 ‘選出’이라는 漢字語의 語彙特性上 結果보다는 進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편 b의 行爲에서 過程의 起點인 ‘철수’는 省略될 수 있는 반면 指向點인 ‘회장’은 必須成分으로 인식되는데, 지향점이 생략된 b'는 ‘회장’의 선출 事實이 話用上 잘 알려져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하며 과정의 결과적 상태로만 해석되는 데 비해, 기점이 생략된 b''는 ‘-고 있-’ 形도 가능한 만큼 行動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34) b'. 우리는 철수를 선출했다.
 b''. 우리는 회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철수를 회장을’과 같은 對格重出形이 불가능한 것은 과정의 기점과 지향점이 동시에 行爲의 對象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데 따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制約은 (34) d와 같이 叙述語를 달리 함

으로써 풀릴 수 있는데 d의 경우 기점과 지향점 성분이 다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모두를 行爲의 對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34) d. 우리는 철수를 회장[으로, 을] 만들었다(삼았다).

d'. *우리는 철수를(회장을) 만들었다.

‘만들다’, ‘(집을) 짓다’와 같은 成就動詞에서 材料와 成就對象의 관계 역시 ‘되다’의 過程에서와 같은 기점과 지향점의 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는 성취의 行爲에 따르는 과정中 對象의 變化에 대한 것이며 行動의 展開樣相은 달리 생각될 수 있다. 가령 (35)에서 과정은 (35)’a로 表示될 수 있는 대상의 변화와 (35)’b로 설명할 수 있는 行動의 節次를 포함하며, 行爲는 一次的으로 행위의 起點인 ‘아이들’과 指向點인 ‘눈사람’의 관계를 뜻하고 二次的으로 行爲의 要素로서 動作의 指向點 ‘눈’과의 관계를 포함하는데, ‘눈’은 행위의 突極的 지향점인 ‘눈사람’에 대해 臨時的 지향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 經過點이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35) 아이들이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었다.

(35)’ a. 눈이 눈사람이 되다.

b. 아이들이 눈을 물리고 쏘아올리고 다듬고 해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흔히 국어의 ‘-로’가 갖는 道具的 意味를 영어의 ‘with’와 같이 ‘쓰다’(use)와 관련짓는데,¹²⁾ ‘쓰다’가 目標를 갖는 다른 行爲가前提되지 않는 이상 獨自的인 형위를 構成하기 어려운, 過程上 行動의 一部라는 점에서 그같은 思考는 蓋然性을 갖는다 하겠으나, 우리는 이를 造格形에 대한 副詞句로서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意義를 찾고, 造格成分에 대해서는 ‘쓰다’라는 特徵의 語彙意味에 拘束됨이 없이 行爲를 構成하는 主要動作의 指向點이자 行爲에 隨伴되는 過程의 起點이라는 해석을

12) 이는 Lakoff에서 由來한 것으로 任洪彬(1974:150)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한편 본고의 해석은 李承旭(1970)의 動作의 論理上 ‘出發處’라는 思考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堅持한다. 우리의 이러한 해석은 혼히 方法이나 手段 또는 賚格의 意味 표현으로 알려져 온 造格構成이나 事物의 成立性을 표현하는 彼動文의 特異型을 설명하는 데도 有用한 것 같다.

- (36) a. 우리는 배로 가자.
b. 철수는 원쪽길로 갔다.
- (37) a. 우리는 그 돈으로 세금을 냈다.
b. 그들은 예금이자로 살고 있다.
- (38) 우리는 한 겨울을 바둑으로 보냈다.
- (39) a. (너는) 배운 사람{이, 으로서} 그런 짓을 하다니.
b. 철수는 학교 대표 {가, 로, 로서} 그 모임에 나갔다.
c. 사람들은 그를 犯人으로 對했다.
- (40) a.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b. 우주는 뜻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36) a는 請誘의 遂行文으로 行爲性만이 문제되는데 ‘타다’와 같은 일정한 動作의 指向對象 ‘배’가 指示되어 있으며, b에서는 移動過程上의 起點과 指向點은 明示되어 있지 않고 經過點 ‘원쪽길’이 지시되어 있는데 이 때 경과점은 ‘따라서 걷다’와 같은 동작의 지향대상이기도 하다. (37) a와 b는 각각 特稱的, 總稱的 行爲로 생각되나, ‘그 돈’에 대해 支拂하는 一回的 동작을, ‘예금이자’에 대해 찾아쓰는 反復的 동작을 行한다는 指向性은 마찬가지다. 다만 a는 a'의 構成도 가능한데 이 때 ‘그 돈’과 ‘세금’의 관계는 (34)의 ‘철수’와 ‘회장’의 관계와 論理的 方向이 類似하므로, 기점과 지향점의 관계로 (34) b'''와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 (37) a' 우리는 그 돈을 세금으로 냈다.
- (34) b''' 우리는 회장을 철수로 선출했다.

(38)은 (36) a'와 (38)'의 意譯文에 비추어 拙稿(1978)에서 ‘-고’와 ‘-며’로 連結되는 두 動詞의 固定된 語順을 主從의 論理的 關係로 설명한 것과 平行되게, ‘바둑’의 特稱的 行爲가 ‘시간을 보내다’는 總稱的

行爲를 指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6) a' 우리는 배를 타고 가자.

(38)' 우리는 한 겨울을 바둑을 하면서 보냈다.

(39) a의 '너'와 '배운 사람'의 관계는 a' 또는 a''로 表示될 수 있는 데 a''의 경우에는 순수히 變項간의 관계 아닌 過程性이 느껴진다.

(39) a' 너는 배운 사람이다.

a''. 너는 배운 사람으로 있다.

(39) b는 '-로' 構成이 과정성을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예로서, 主格形의 '학교 대표'는 '나가다'는 行爲와 無關한 철수의 屬性 표현이지만 '-로' 나 '-로서' 形은 그 속성이 나가는 行爲와의 관련 속에서만 意味를 갖는 것임을 보여준다. c는 c'의 이론바 對格補語를 요구하는 動詞類와 같이 狀況指示的(deictic)으로는 같은 대상을 兩極的으로 파악하여 過程性을 賦與한다.

(39) c'. 사람들은 그를 범인으로 생각했다(斷定하다, 여기다, 取扱하다...).

다음 c''에서 '-로' 構成이 더 자연스러운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39) c''.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범인{으로,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0)은 각각 a', b'의 能動文에 對應시킬 때 成立過程의 方向은 一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a'. 수소와 산소가 물을 구성하고 있다.

b'. 물별들이 우주를 이루고 있다.

授與動詞類는 統辭的으로 세 자리 叙述語, 즉 두 개의 目的語를 갖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데, 意味上으로는 行爲의 對象 외에 指向點을 더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향점에 관한 한 종래의 해석은 對象의

移動方向과 行動 또는 行爲의 方向을 구별하지 않고 지향점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에게' 成分의 解釋에 어려움이 있었다.

- (41) a. 칠수가 영이 [에게, 를] 선물을 주었다.
 b. 영이가 칠수{에게, 에게서,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c. 선물이 칠수에게서 영이에게(로) 주어졌다(갔다, 옮겨졌다).
- (42) a. 칠수가 영이 [에게, ?를] 꽃을 팔았다.
 b. 영이가 칠수 가게에서 꽃을 샀다.
 c. 칠수에 의해서, 꽃이 영이에게 팔렸다.
- (43) a. 칠수가 영이에게(로) 꽃을 보냈다.
 b. 칠수에 의해서, 영수가 영이에게 갔다.
 c. 칠수에 의해서, 꽃이 영이에게 갔다.
 d. 영이가 [칠수, 영수]에게(서) 꽃을 받았다.
- (44) a. 칠수가 영이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b. 영이가 칠수에게 노래를 배웠다.
- (45) a. 칠수가 영이에게 그 사실을 밝혔다.
 b. 영이가 칠수에게 그 사실을 들었다.
 c. 그 사실이 칠수로부터 영이에게로 전해졌다.
- (46) a. 칠수가 영이에게 영수를 아느냐고 물었다.
 b. 칠수가 영이에게 영수를 아는가를 물었다.
 c. 영이가 칠수에게서 영수를 아느냐는 물음(질문)을 받았다.
- (47) a. 칠수가 영이에게(서) 꽃을 사(서) 주었다.
 b. 영이가 칠수에게 꽃을 받았다.
- (48) a. 칠수가 영이를 칭찬했다.
 b. 영이가 칠수에게 칭찬을 받았다(들었다).
- (49) a. 칠수는 영이에게 미안했다.
 b. 칠수는 그 일을 미안해했다.
 c. 영이는 칠수에게서 (그가) 미안해하는 느낌을 받았다.

對象과 行動의 方向이 混同되기 쉬웠던 것은, 典型的인 授受關係 표현의 경우 그 行爲性이 弱해서 過程性과 同一視된 데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주고 받는 행위란 對象의 場所移動 現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行爲의 指向點과 對象의 지향점이 같은 데서 빚어진 誤解일 뿐이지 過程性이 두드러지다고 해서 行爲性을 否認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에게'에 대한 해석에 있어 差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가령 (41) a의 경우 '영이'는 '선물'의 지향점으로 쉽게 생각되지만 또한 '철수'의 행위의 지향점이기도 하며, 이는 '-에게'構成에서는 形態上 識別될 수 없지만 (41) a의 對格形, b의 經驗, c의 過程 표현에서는 확인될 수 있다. 필자의 直觀으로 a의 대격성분은 행위의 지향점으로만 해석되고, b의 '-에게' 성분은 過程上 行動의 起點으로 해석되는 반면 '-에게서'나 '-로부터' 성분은 對象 移動過程의 起點으로 해석되며, c의 '철수'와 '영이'는 각각 대상 이동의 기점과 지향점으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한편 c의 '-에게로' 形은 '-에게' 形에 비해 대상의 지향점을 明示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로'統合에 의한 過程性은 (43) a에서는 '-에게' 성분인 '영이'가 시킴을 받는 經過點 아닌 지향점으로만 해석되도록 작용한다. 그러면 (42) a에서는 왜 대격형이 어색하게 느껴질까, '-에게' 성분 '영이'가 행위의 지향점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인가. 우리의 常識으로는 파는 행위가 주는 행위보다 행위의 지향점을 想定하는 데 더 적합해 보이므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필자는 대격형 실현의 문제를 指向點보다도 行爲와 그 對象의 문제로 보고자 한다. 즉 (41) a의 대격성분 '영이'는 行爲의 指向點이 행위의 對象으로 昇格되는 意味論的 節次를 거친 結果로 보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思考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여러 對格 實現의 경우 중 어느 만큼을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格文法의 이론과 一文一格의 原理에 비추어 行爲의 對象이 둘이라면 (41) a가 複文인가 하는 의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첫째 문제의 경우 對格主題化나 目的語化가 意味論의으로는 對格構成에 대해 說得力 있는 설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둘째 경우는 本稿의 起點, 指向點, 對象의 개념은 動詞에 대해 單一한 關係를 갖지 않고 經驗, 過程, 行爲 등에 따라 각각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格文法의 經驗主, 對象, 起點, 指向點, 動作主 등 內

面格範疇들과 깊이 관련되기는 하되 논리상 相違點을 갖는다는 것으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 둔다.

(41)의 狀況에서는 a는 行爲로, b는 獨自的이고 能動的인 行爲로 보다는 受動的인 經驗으로 인식되나, (42)의 a와 b는 각각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을 내세워 같은 行爲로 표현하고 있다. b의 ‘철수 가게’는 ‘철수’에 對應하는 過程의 起點으로서 過程上 기점과 지향점의 관계는 a와 b가 동일하다. 이 관계는 c에서도 유지되는데 行動의 기점은 특이하게 ‘-에 의해서’ 構成을 가지나 a의 主語 ‘철수’와 꼭 일치하는 成分일 수는 없다. 영수에 의해서 철수가 팔게 되었을 경우에도 c의 ‘철수에 의해서’ 대신 ‘영수에 의해서’가 쓰이고 ‘철수’는 ‘철수로부터’나 ‘철수에게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43)의 ‘보내다’는 行爲의 對象 외에 시킴을 받는 이와 대상이 指向하는 이의 두 지향점을 가질 수 있어서, 過程上으로는 ‘철수’와 ‘영수’, ‘영수’와 ‘영이’ 간에 行動의 기점과 지향점의 관계가 성립되고 아울러 c의 대상 이동과정도 隨伴된다. (41)의 경우에도 動詞가 行爲性과 行動性만 갖는 것으로 해석되면 c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을 수 있는데, ‘보내다’는 語彙特性上 d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a와 d는 因果關係에 있는 別個의 狀況으로 생각된다. (44)는 두 動詞의 語彙意味上의 關係는 (42)와 같으나 ‘-에게’ 성분의 對格 實現은 (41)과 같다. (45) b 역시 (41) b처럼 經驗 또는 行爲로 해석되는데 어느 경우든 c의 과정은 수반된다. (46)의 a와 b의 관계는 (41) a의 ‘-에게’ 構成과 對格 구성의 관계를 想起케 하는 것으로 副詞成分이 對象成分으로 昇格되었다 할 수 있으며, c는 c'와 더불어 물는 行爲에 수반되는 두 過程을 보여준다.

(46) c' 영이가 영수를 아는가가 철수에게서 영이에게 물어졌다.

(47) a는 ‘-서’의 統合과의 관련하에 과정 b를 수반하는 (41), (42)의 複合的 行爲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른바 施惠補助動詞 ‘주다’의 用

法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後者는 우리의 관점에서 ‘꽃을 사기’와 같은 行爲로서의 對象이 ‘영이’를 指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8) a는 a'와의 관계가 주목되는데 b는 a'와 相應한다.

(48) a'. 칠수가 영이에게 칭찬을 했다.

(49)는 心理 表現으로서 『장의 둘째 狀況으로 논급되었는데 (16)의 ‘그린다’, ‘슬프다’, (17)의 ‘놀랍다’, ‘놀라다’, (19)의 ‘후회하다’와 관련지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6) a'는 過程 및 作用 표현으로서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다’로 意譯될 수 있고 ‘칠수’가 主格成分인 경우에는 內的 經驗 표현으로 過程性이 수반되는데, 작용이든 경험이든 과정성은 a''로 풀이할 수 있으며 經驗性은 a'''로 해석된다. 그리고 他動詞 文 (16)'는 行爲라기보다는 受動的 經驗으로서 (20)a와 過程上 유사하게 本能的, 自然發生的 표현으로서의 動作性을 수반할 수 있다.

(16) a'. 칠수에게 영이가 그리웠다.

a''. 칠수에게 영이가 그립게 느껴졌다.

a'''. 칠수가 영이를 그럽게 느낀다.

(16)' 칠수가 영이를 그리워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49) a'의 經驗 표현에서 ‘그 일’이라는 作用 또는 作用過程의 起點을 보이듯이 過程性을 수반하면서도 a''의 과정 표현은 不可能하며, a'는 대신 a에서처럼 經驗의 指向點 ‘영이’를 갖는데 이는 경험의 다른 지향점이자 對象인 ‘그 일’과 구별된다. 그리고 b는 (16)'와 같이 해석할 수 되어 c에 비추어 動作과 아울러 느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49) a'. 칠수가 그 일이 미안했다.

a''. *칠수에게 그 일이 미안했다.

한편 (17) a의 ‘놀랍다’는 ‘그립다’와 같은 過程을 수반하는 作

用이나 經驗으로 해석되는데, b의 '놀라다'는 處格成分을 갖는 自動詞로서 經驗의 指向點이 對象으로 昇格되지 못함으로써 作用過程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 점 경험 표현의 '놀랍다'가 刺戟을 内面化시킨 데 비해 直接的 反應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후회하다'는 자극이 자신 속에 內在하는데도 '후회스럽다'가 작용 표현에 쓰이는 것을 보면 이들 動作動詞에서 派生된 狀態動詞類는 內的 作用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時間과 場所 表示成分은 文章構造에 있어 附加語(adjunct)나 附隨的役割(circumstantial role)을 갖는成分인 데 비해, 場所 移動 表現은 空間 표현이고 같은 副詞成分으로 機能하면서도 意味論의 으로는 必須의 으로 요구된다. 이는 잘 알려진 대로 시간과 장소 표현은 動詞의 語彙特性에 따른 制約을 별로 받지 않으나 장소 이동 표현은 移動性이나 方向性을 갖는 特定 動詞類에 制限된다는 사실과 有關하다. 무릇 어떤 行動이나 事件이 特定 時點이나 일정한 時區間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特定 場所에서 일어나는 것과 일정한 空間的 移動을 수반하는 것과는 相互排他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정한 時區間 속에서 이루어지는 狀況과 공간적 이동과정이 수반되는 상황의 경우에 起點과 指向點, 혹은 經過點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 時點과 時區間의 문제는 時相에 관한 논의에서, 處所와 方向性의 문제는 관련 助詞 또는 그 先行成分의 意味와 機能에 관한 논의에서 깊이 追求될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두 極點에 대한 認識과 表現의 문제만을 지적코자 한다.

(50) a. 우리는 {10시에, 어제, 겨울에} 만났다.

b. 우리는 10시부터 밤늦게까지 만났다.

c. 우리는 {한나절, 세 번}(을) 만났다.

(51) a. 우리는 세 시간 동안 영화를 보았다.

b. 영화는 세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c. 영화는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다.

(52) a. 하던 일을 5시{에, 까지} 끝내.

- b. 하던 일이 5시 {에, ?까지} 끝났다.
- (53) a. 내일 {*에, 부터} 나와.
 b. 10시 {에, ?부터} 나와.
- (54) 10시 {?에, 부터} 나와 기다렸다.
- (55) 철수는 서울 {에서, 부터, 에서부터} 부산 {여, 을, 으로, 까지} 갔다.
- (56) a. 철수는 서울 {*에, 을, 로, 에서} 떠났다.
 b. 철수는 서울 {에, 을, 로, 까지} 걸어갔다.
 c. 철수는 서울 {에, ?을, *로} 도착했다.
- (57) 철수는 {학교(에), 등산, 십 키로}를 갔다.
- (58) a. 이 길은 뒷 산으로 通한다.
 b. 우리는 標的을 向해서 총을 겨누었다.

(50)은 ‘만나다’의 時相特性에 따라 時間表示成分이 時點 혹은 時區間으로 선택됨을 보여주는데 c의 對格成分은 단순한 시간 표현 아닌 行爲의 對象으로 인식된다. (51)은 같은 狀況에 대해 a는 行爲로, b는 過程의 持續으로, c는 兩極點上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起點과 指向點으로서의 인식은 c에서만 가능하되 對格成分은 될 수 없다. (52)~(54)에서 는 ‘에’는 極點으로서의 時點을, ‘부터’와 ‘까지’는 過程의 기점 또는 지향점을 표시함을 알 수 있다. 가령 (52)a에서 ‘-에’形은 일의 中止를, ‘까지’形은 일의 達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5)에서 起點成分과 指向點成分이 다 實現될 경우 ‘가다’는 行爲로서보다는 過程으로 이해된다. 가는 행위에 있어 과정의 기점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지향점은 곧 행위의 지향점으로도 인식되기 때문이다. 과정의 지향점 성분은 格形으로 실현되는 것이 어색하고 ‘까지’形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가다’의 特性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로’形은 (59)와 같이 과정 표현에 쓰일 수 있다.

(59) 이 삿길이 친총에서 아래총으로 옮겨졌다.

(55)의 處格形, 對格形, 造格形간의 관계에 대해 시는 洪允杓(1978)의 논의가 있거니와 우리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差異는 그의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에'는 起點과 無關하게 過程의 指向點만을, '-을'은 과정의 지향점을 기점과의 관계 속에서 行爲의 指向點으로, '-로'는 기점과의 관계 속에서 對象의 지향점이자 行動의 지향점을 표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에'의 極性, '-을'의 行爲性과 過程性 '-로'의 過程性은 (56)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57)은 行爲의 對象과 指向點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對象의 지향점 '학교'가 곧 행위의 대상 성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副詞的 인식을 통해 對象으로 定立되는 절차를 생각해 본 것이며, (58)은 '-로'의 過程性과 '-을'의 行爲性을 확인 할 수 있는例이다.

이상 動詞의 特性에 따라 起點과 指向點의 關係로 解釋되는 例들을 過程과 行爲를 區別하는 관점에서 검토했는데, 여기에는 作用과 經驗을 行爲와 區別하는 문제, 過程의 諸樣相을 좀더 치밀하게 分析하여 綜合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같은 여러 意味論의 次元에서의 起點과 指向點의 관계가 主格, 處格, 對格, 造格成分들의 關係 解釋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 들이 남아있다. 本稿는 다음 章에서 가능한 한 앞선 論議와의 重複을 피해 세째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動詞의 特性을 밝히고자 한다.

V

文法的 概念으로서 自動詞란 하나의 體言成分만을 갖는 한 자리 叙述語로 定義되겠으나, 이를 意味論의 으로 吟昧해 보는 것도 우리 思考에 크게 有用한 것 같다. 하나의 체언성분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곧 主語의 資格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目的語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對格成分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自動詞란 하나의 對象에 局限된 狀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과연 자동사들의 表現內容을 보면 對象의 屬性, 狀態, 變化過程, 自然現象, 動作이나 行

爲 主體 스스로에게만 變化를 일으키는 行動 들로서 다른 對象의 參與를 자연스럽게 拒否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過程이나 作用의 경우, 起點과 指向點에 대한 意味論的 認識이 單文의 統辭構造 속에서 또는 그 構造的 틀을 벗어나 動詞로 표현되는 狀況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았거니와, 여기서는 行動이나 行爲에서의 그 適用 可能性을 보겠다.

行爲는 人間에 固有한 意志의 所產으로, 다른 動物의 움직임은 個個의 動作 또는 過程上 行動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行爲의 主體는 인간에 限定된다. 따라서 같은 動作動詞라도 그 行動의 樣相에 따라 달리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가령 다음에서 (60) a는 行動過程이 수반되는 行爲로, b는 行動 過程만으로 이해되며, (61)에서는 a는 行爲로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동과정 또는 作用 過程이 수반되는 經驗으로, a는 행동 또는 작용 과정으로 보여진다.

- (60) a. 형사가 범인을 쫓고 있다.
b.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다.
- (61) a. 철수가 자고 있다.
b. 개가 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래의 動作主의 개념은 行爲나 行動의 起點과 指向點 또는 經過點(시킴을 받는 경우)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동작주의 意圖性 與否나 主語成分과 '-에게' 成分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령 (60) a는 自意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他意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行爲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그 行爲性을 成立시키는 要件으로서의 意圖性의 存在는 명백하다. 그러나 (60) a는 特殊한 상황에서 (62)와 같은 無意識的 行爲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때 형사의 行動은 (60) b의 고양이의 本能的 行動과 흡사하다.

- (62) 철수가 (실수해서, 무심코, 열렬결에) 책을 떨어뜨렸다.

간혹 (63)과 같은 예문이 非意圖性과 道具性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行動 아닌 作用過程 표현이기 때문이다.

(63) 그의 흥한 물골이 아기를 울렸다.

그리고 後述되겠지만 다음 a'와 a''의 被動, 使動文에서 '-에게' 成分이 '-에 의해서' 성분이나 主語성분과 달리 인식되는 것도 行爲와 行動, 作用의 差異에 따른 것이다.

(60) a'. 범인이 형사에게 쫓기고 있다.

a''. 형사가 부하에게 범인을 쫓게 했다.

요컨대 意圖性이란 行爲의 起點을 확인할 수 있는 證據로서 그 存在가 둘 이상일 때는 行爲간의 관계도 생각될 수 있으나 行動過程上으로는 같은 線上에 놓이며, 本能的, 自然發生的 欲求나 認識, 感覺 作用과는 行動의 實現, 行爲의 成就 過程의 어떤 段階에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련을 맺되, 이에는 非意圖性을 특징으로 하는 經驗과 作用이라는 다른 人間的 活動이 想定되는 것이다.

行動過程은 다른 過程과 같이 그 意味解釋이 單文의 水準을 벗어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意圖性과 動作性의 문제까지 관련되어 그 起點과 指向點을 잡기가 어렵다. 動詞에 대한 意味解釋에서 想定될 수 있는 體言 또는 副詞成分들의 關係를 兩極的으로 把握해 보는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動作主가 行動의 動機와 結果를 다 갖게 된다면 그가 곧 행동 과정의 기점이자 지향점인 것으로 생각해 봄직하다. 그리고 혹 動作主自身 全體나 一部가 다른 對象처럼 想定된다 하더라도 動作主와 그 分身으로서의 對象간의 관계는 같은 線上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동작주는 행동 과정의 기점으로뿐만 아니라 行動過程의 기점으로, 動作의 對象은 동작 과정의 지향점으로 次元을 달리 하여 인식된다. 아울러 動作主가 使嗾者, 行爲者, 動作者의 관계에서 보듯이 둘 이상 하나의 行動에 參與할 경우에는 使嗾者가 全 過程의 기점, 動作者가 지향

점이 되 동작주들간에 下位 行動過程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行爲의 次元에서는 主語 機能의 動作主와 動詞간의 관계를 主軸으로 하여 參與成分(participant)들을 指向點 또는 對象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行爲로 分解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單一한 관계가 모색될 수 있다.

自動詞의 문제로 돌아와 動作主 成分 하나로 이루어지는 自動性을 行爲의 한 樣相이란 점에서 본다면, 動作主를 行爲의 起點으로 볼 때 指向點成分이 實現되어 있지 않고 行爲의 對象成分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된 自動詞의 統辭論의 特性에 주목하여 自動性을 定義한 것으로 朴良圭(1978: 56)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自動이란 動作主 자신 全體를 對象으로 이루어지는 行爲로서, 對格成分으로의 實現 意義가 찾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必須的으로 消去된다는 것 이었다. 自動詞의 再歸的 特性과 格文法의 對象의 개념에 비추어 위의 解釋은 說得力이 있으나 그렇다고 (64)와 같이 自動詞文의 基底에 對格成分을 상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64) 영이가 (영이를→φ) 의자에 앉았다.

이 점에 관한限 對格成分 想定의 意義가 없음을 對象成分의 存在 자체의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主語 ‘영이’를 行爲 또는 動作의 指向點으로, 또 (64)'로 해석하여 ‘영이’를 行動 過程의 指向點으로 볼 으로써 主語의 特性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64)' (영이에 의해서→φ) 영이가 의자에 앉았다.

(64)'의 ‘-에 의해(서)’成分은 行動의 起點인데 흔히 省略되는 것은 行爲의 起點과一致하는 것이一般的이라는 表現 狀況, 즉 行爲의 論理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自動詞에 의해 표현되는 再歸的 行爲를 主語가 行爲의 起點이자 指向點이며 또한 行動의 지향점인 행위로 생각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에 對해 行爲를 한다는 점에서 主語를 行爲의 對象으로도 삼을 수 있겠으나, 行爲의 지향점이 바로 그러한 點에 留意한 개념이라 할 때 對格成分으로 實現되는 行爲의 對象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行爲의 對象을 行爲 現象에 固有한 것으로 보아 過程의 對象이나 行爲의 指向點과 区別지으려는 노력으로, 後者가 經驗的 實體로서의 對象이라면 前者は 先驗的 存在로서의 대상이라 하겠다. 이 같은 思考를 통해 우리는 (64)의 基底文을 (64)''로 表示할 수 있는데,¹³⁾ 이 때 指向點 成分이 實現되지 못하는 것은 對象의 지향점 성분인 '의자'의 存在와도 관련되겠지만 역시 再歸的 行爲의 特性에 말미암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64)의 被動文 (64)'''의 主語가 行動의 起點으로서 반드시 自己 아닌 다른 對象을 요구하는 것은 被動性의 한 特徵이라 하겠다.

(64)'' (영이에 의해서→φ), 영이가 (영이에게→φ) 의자에 앉았다.

(64)''' 칠수에 의해서, 영이가 의자에 앉혀졌다.

이른 바 對格 支配의 再歸他動詞는 行爲의 起點과 動作의 指向點이 分離되면서 行爲의 對象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64)''에서의 指向點 成分 想定은 自動詞文의 경우 統辭論의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他動性을 갖게 되는 (65)의 경우부터 비로소 表面에서의 實現을 확인할 수 있다. (65)의 基底文은 (65)'와 같이 解釋함으로써 動作의 指向 對象이 行爲의 對象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66), (67)은 (66)', (67)'에서 보듯이 각각 動作의 指向點, 過程의 起點이 行爲의 對象이 됨으로써 對象 成分에 대한 意味解釋이 단순치 않음을 보여준다.

(65) 영이가 고개를 숙였다.

(66) 영이가 춤을 추었다.

(67) 영이가 잠을 졌다.

13) 基底文(64)''는 (64)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對格成分이라는 指示 없이 意味表示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65)' 영이가 고개에 (속이는 動作을 加해서) 속였다.

(66)' 영이가 (몸에 흔드는 動作을 加해서) 춤(으로 成立된 狀態)를 추었다.

(67)' 영이가 잠(의 狀態)에서 깼다.

對格 支配 再歸他動詞의 경우 行爲 또는 過程의 指向性이 基底에서 想定될 수 있을 뿐 成分간의 關係 表示에 잘反映되어 있지 않아 指向點과 對象간의 관계를 特徵짓기 어려운 데 비해, 處格 支配 再歸他動詞는 이들 관계를 區別 表示함으로써 우리의 理解를 돋는다.

(68) 칠수가 가슴에 영이를 안았다.

(68)에서 起點과 指向點의 관계는 行爲의 次元에서 '칠수'가 起點이자 指向點, '영이'는 對象, 動作의 차원에서 '칠수'는 '가슴', '영이'를 지향점으로 하는 기점, 行動의 차원에서 '칠수'가 기점, '영이'는 지향점, 過程의 차원에서 對象은 '영이' '가슴'이 지향점 들로 해석되는데, 이를 (69)의 自動詞文, (70)의 對格 支配 再歸他動詞文, (71)의 非再歸的 he動詞文들과 比較해 보면 각 構文들 간의 관계가 좀더 밝혀질 수 있다.

(69) 칠수가 누웠다.

(70) 칠수가 봄을 급쳤다.

(71) 칠수가 공을 던졌다.

(68)~(71)은 主語 '칠수'가 行爲의 起點이자 指向點이라는 점에서 共通되는데 이는 使動文 (69)'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行爲로서의 使動性은 행위의 기점과 다른 지향점, 즉 非再歸的 指向點을 갖는다고 보겠다.

(69)' 칠수가 영이를 눕혔다(눕게 했다).

(69)는 行爲 對象의 不在가 특징으로, '칠수'가 對象格일 수 있음은 動作의 指向點, 過程의 對象이란 점에서 수긍될 수 있다. (70)의 他動

性은 行爲 대상의 定立으로, 使動性은 行爲 또는 行動의 起點導入에 따르는 過程性의 成立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68)의 他動性에 비해 動作의 指向點이 再歸的이고 對象의 지향점 성분이 特定化되기 어렵다는 差異를 지닌다. (71)은 處格成分으로 實現되는 對象의 지향점 성분이 非再歸的이라는 점에서만 (68)과 다르다. 이와 관련해 前章에서 언급되었던 세 가지 構文을 검토함으로써 亂脈相을 보이고 있는 行爲와 動作, 過程의 論理를 다듬고자 한다.

- (72) 칠수가 詩를 썼다.
- (73) 칠수가 봇으로 글씨를 썼다.
- (74) a. 칠수가 밥을 먹었다.
b. 칠수가 책을 읽었다.

(72)와 (73)의 ‘쓰다’는 行爲의 指向點을 對象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72)는 지향점의 抽象性으로 인해서 動作의 지향점 성분을 特定화하기 어려운 반면, (73)은 ‘칠수’와 ‘봇’ 간의 動作過程, ‘봇’과 ‘글씨’ 간의 作用過程을 쉽게 誘導해낼 수 있다. (74)는 朴良圭(1978: 55)에서 (74)'와 같은 處格成分의 想定이 어색함이 적절히 해석되었듯이, ‘칠수’가 行爲의 指向點이고 動作의 지향점으로서 造格成分이 상정, 실현될 수 있을 뿐 對象의 지향점은 상정되기 어렵다.

필자의 起點과 指向點에 대한 생각은 被動, 使動의 문제와의 깊은 관련 속에서 진전되어 왔으나 本稿의 制約上 간단한 생각의 틀만을 제시하고 뒤로 미룬다. 被動과 使動의 문제는 本動詞文의 文章構造를 基點으로 하여 그 統辭構造의 變化를 설명하려는 變形論의 立場과 動詞의 語彙特性에 따라 統辭論의 制約과 意味解釋上의 差異가 주어진다는 語彙論의 입장, 相反되는 意味 중심의 논의에 대해 派生接辭 ‘-이-’의 統辭論의 機能을 動詞의 支配成分들간의 關係 속에서 특징지으려는 입장, 動作化, 非動作化 등의 意味論의 派生節次와 被動屈折로 意味構造

의 力動性을 설명하는 입장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¹⁴⁾ 우리의 입장은 動詞에 대한 深層的 理解의 관점에서 成分들간의 意味論的 關係를 해석하려는 것이다. 사실 過程의 面에서 본다면 使動, 能動, 被動은 連續的으로 파악될 수 있어서, 같은 狀況에 대한 다른 表現들일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그 過程上의 一致와 行爲性의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가령 그 同義性 문제¹⁵⁾가 논의되어 온 (75)의 두 使動 表現은 能動, 被動에 비해 狀況에 대한 意味上의 情報를 最大로 表示해 줄 수 있는 統辭構造를 가지며, 특히 b의 '-게 하-' 型은 行爲의 全 過程을 段階的으로 追求할 수 있다는 점에서 行爲의 窮極的 指向點이나 對象을 밝히고자 하는 a型에 대한 存在意義를 갖는다.

- (75) a. 철수가 영이에게 웃을 입혔다.
 b. 철수가 영이{에게, 를, 가} 웃을 입게 했다.

(75)가 狀況에 대한 意味成分들을 빠짐없이 表示하고 있다 할 때 우리는 다음의 몇 段階를 상정해 봄으로써 상황을 全體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76) a. 철수가 (철수에게→φ) 意圖(决心, 判斷….)하다.
 b. 철수가 (철수에게→φ) 行爲(命令, 誘導….)하다.
 c. 철수가 (철수에게→φ) 動作하다.
 c'. 철수가 영이에게 動作하다.
 d. 철수{에게, 에 의해서} 영이가 웃이 입혀지다.
 d'. 철수{?에게, 에 의해서} 웃이 영이에게 입혀지다.
 b'. 철수가 영이에게 行爲하다(시키다).

14) 李基東(1976)에 첫째 입장에 대한 적절한 批判과 둘째 입장이 밝혀져 있고, 세째, 네째 입장은 朴良圭(1978)와 朴泳穆(1977)으로 대표된다.

15) 양인석(1974)과 Shibatani(1973, 1975)의 논쟁과 그 후 송석중(1978, 1980)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참고문헌란에 제시하지 않은 두 논문은 다음과 같다.

Shibatani, Masayoshi(1973),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 281~98.

송석중(1978), "使動文의 두 形式", 언어 제 3권 2호 pp. 1~13.

- e. 영이가 (영이에게→φ) 意圖하다.
- f. 영이가 (영이에게→φ, 칠수에게) 行爲하다.
- f'. 칠수가 영이에게 許諾하다.
- g. 영이가 (영이에게→φ) 動作하다.
- g'. (칠수에 의해서) 영이가 옷을 입다.
- h. 영이가 (영이의 손, 옷)에 動作하다.
- h'. 칠수가 (칠수의 손, 옷)에 動作하다.

물론 (75)가 위의 過程을 單線的인 構造에 다反映할 수는 없겠으나 能動文 (75)'의 a, b가 각각 (76) a~c, h'와 (76) e~g, h의 과정들로 해석될 수 있음과 同軌의 논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 (75)' a. 칠수가 옷을 입었다.
 b. 영이가 옷을 입었다.

(75)의 使動性은 (75)'에 비추어 行爲의 非再歸的 起點과 指向點의 導入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75)'의 行動 過程에 새로운 行爲 또는 行動 過程이 追加됨으로써 行爲나 行動의 方向性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75) a는 b의 '하다'를 (76) f나 f'의 許諾으로 해석할 경우 허락하는 행위의 方向이 逆인 두 가지 意味를 가질 수 있다. 즉 칠수 자신에게 '영이가 옷을 입히는 것을 허락할 경우와 영이 자신이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로서, 前者는 (75) a'와 같이 對格成分을 상정할 수 있는 使動의 特異形으로서 經驗 表現으로 생각할 수 있다.

- (75) a'. 칠수가 영이에게 (칠수를→φ) 옷을 입혔다.

이렇게 '하다'의 行爲 또는 動作內容의 起點과 指向點을 달리 잡음에 따라 意味解釋이 달라질 수 있음은 (75) b를 (75) b'의 基底文에서 誘導해 낼 때 더 확실해진다.

- (75) b' 칠수가 영이에게 [칠수, 영이]가 옷을 입게 하다(意圖, 行爲, 動作…).
 그리고 이러한 行動의 方向性은 (76) d, d'의 被動過程文, (76) g'로

표시해 본 시킴에 의한 能動文, (77)의 狀態動詞派生 使動文에서도 쉽게 確認된다.

- (77) a. 市에서 도로를 넓혔다.
 b. 칠수는 영이에게 身分을 밝혔다.
 c. 말씀을 낫추시지요.

예외적으로 (77) d는 作用의 方向性을 반영한다.

- (77) d. 칠수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한편 非動作化나 自動性 被動詞로 설명되는 (78)의例들도, 被動性이란 일반적으로 行爲性을 잃는 대신 過程性 표현에 효과적인 統解構造를 갖게 됨을 뜻한다는 점에 비추어, a와 b는 作用過程으로, c, d는 對象의 移動 過程으로 해석할 수 있다.

- (78) a. 날씨가 풀렸다.
 b. 서울까지 세 시간 걸렸다.
 c. 요즘은 그의 노래가 잘 팔린다.
 d. 운동을 하니 밥이 잘 먹힌다.

요컨대 使動과 被動의 意味 表現에 관련된 '-이-', '-게 하-', '-지', '-되다' 등은 '-에', '-에게', '-에 의해서' 등 處格形의 實現을 두드리자마자 보이면서, 本動詞文에서는 意味論의으로만 想定될 수 있었던 行爲, 行動, 過程上의 起點과 指向點의 관계를 表示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VII

우리는 現象을 理解함에 있어 孤立的, 斷片的으로 보기보다는 全體的, 連續的으로 보고 싶어하며, 그러기 위해 그에 깃들인 因果的 論理를 찾게 되는데, 특히 變化의 樣相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의

두 極點을 想定하고 中間에 進前되어 나가는 모습, 즉 過程性을 관찰하게 된다. 이러한 認識은 言語의 意味構造에도 反映되어 格範疇로서 Source와 Goal이 提案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들 概念을 對象의 空間的 移動과 指向性에 局限시키지 않고 動的 狀況 表現에 全般的으로 적용시켜 보려 했다. 그 하나의 經驗的 證據였던 處格形과 造格形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아직 未治하고, 우리 論理의 중요前提였던 過程, 行動, 行爲의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意味解釋上의 새로운面貌을 밝혀보려 했다는 점을 意義로 삼아 아래에 論旨를 要約해 둔다.

(i) 本稿에서의 起點과 指向點의 개념은 動詞의 文法的 特性보다는 動詞가 表現하는 狀況의 意味論的 特性과 더 관련된다.

(ii) 起點과 指向點은 過程性에 대한 認識으로, 過程은 물론 狀態와 行動에 있어서도 確認될 수 있어서, 作用과 아울러 經驗과 行爲의 문제를 解기한다.

(iii) 經驗과 行爲를 人間이 主體로서 對象을 갖는 特別한 過程으로 보아, 이들에 隨伴되는 과정을 作用, 動作, 行動들로 설명한다.

(iv) ‘되다’ 構文과 成就動詞는 成立過程의 兩 極點으로, 道具格成分은 動作의 指向點이자 作用의 起點으로, 授與動詞는 對象移動과 行動의 過程을 區別함으로써 ‘-에게’ 成分을 對象 또는 行爲의 指向點으로, 時間과 場所移動 表示成分은 附隨的 成分이 되 두 極點 또는 經過點으로 각각 解석된다.

(v) 行爲, 動作, 過程의 指向點成分이 對格形으로 實現되는 것을 對象의 定立이라는 意味論的 節次로, ‘-에’와 ‘-로’를 極性과 過程性으로 설명한다.

(vi) 動作主는 行爲의 起點이되 意圖性이 따로 存在할 때는 그 動作主가 行動의 起點이고 두 動作主간에는 行爲의 過程을 상정할 수 있다.

(vii) 行爲의 指向點과 對象간의 관계에 있어, 再歸的 自動詞는 主語가 行爲의 起點이자 指向點이고 對象이 없는 것으로, 對格支配 再歸他動

詞는 行爲의 指向點은 維持되나 動作의 指向點이 分離되면서 行爲의 對象을 갖게 된 것으로, 處格支配 再歸他動詞는 行爲의 指向點과 對象의 지향점이 같아서 混同되기 쉬운 것으로 해석된다.

(viii) 使動性은 行爲의 非再歸的 起點 또는 指向點을 導入함으로써 새로운 行爲나 行動의 方向性을 주며, 被動性은 行爲性을 잃는 대신 過程性을 強調함으로써 過程의 方向性이 維持되는데, 許諾 表現의 경우 같은 ‘-게 하-’ 構成에서 行爲의 方向性만 逆으로 解析함으로써 被動, 使動의 의미로 다 해석된다.

參 考 文 獻

- 金興洙(1978), “同時構文의 樣相”, 國語學 7, 國語學會.
- 金興洙(1980), “因果構文의 解釋”, 國語文學 21, 全北大 國語國文學會.
- 朴良圭(1978), “使動과 被動”, 國語學 7, 國語學會.
- 朴承穆(1977), “國語 使動詞와 被動詞의 意味構造”, 國語國文學論集 5
 (서울大 師大 國語國文學研究會)
- 成光秀(1979), 國語 助詞의 研究, 蟾雪出版社.
- 宋秉桓(1979), “한국어의 수동태”,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 梁東輝(1973), “Inner and Outer Locatives in Korean”, 語學研究 9.1,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양인석(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語學研究 10.1,
- 李基東(1976), “韓國語 被動形 分析의 檢討”, 人文科學論叢 9(建國大)
- 李相億(1970), 國語의 使動·被動構文 研究, 國語研究 26, 國語研究會.
- 李承哲(1970), “現代國語의 格의 相關性”, 檀大 國文學論集 4.
- 李承旭(1973), 國語文法體系의 史的研究, 一潮閣.
- 李廷政(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 任洪彬(1974), “[로]와 選擇의 樣態化”, 語學研究 10.2.
- 任洪彬(1977), “被動性과 被動構文”, 國民大 論文集 12.
- 任洪彬(1978), “國語 被動化의 意味”, 震擅學報 45.
- 최현배(1971, 네번째 고침판), 우리말본, 정음사.
- 洪允杓(1978), “方向性 表示의 格”, 國語學 6.
- Chafe, Wallace 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llmore, Charles J. (1971), “Types of Lexical Information” In Danny D. Steinberg & Leon A. Jakobovits (eds.),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llmore, Charles, J. (1977) “The Case for Case Reopened” In Peter Cole & Jerrold M. Sadock (eds.) *Syntax and Semantics* V.8. Academic Press, Inc.
- Halliday, M. A. K.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John Lyons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Penguin Books.
- Halliday, M. A. K. (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G.R. Kress (ed.) Oxford University Press.
- Nilsen, Don L. F. (1973), *The Instrumental Case in English*, Mouton & Co. N.V. Publishers. The Hague.
- Shibatani, Masayoshi (1975), “On the Nature of Synonymy in Causative Expressions” *Language Research* 11:2
- Shibatani, Masayoshi (ed.) (1976) *Syntax and Semantics* V.6. Academic Press.
- Song, Seok. Choong. (1980) “Perception or Reality? Korean Causatives Reexamined” *Korean Linguistics* V.2.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